

성도의 벗 I 2 199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표지 설명 —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마태복음 2:9)
 프랑스 예술가인 구스타프 도레(1832~1883)의 작품인 이 판화와 목판화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16쪽 참조)에 나오는 구세주의 삶을 묘사한 것들이다. 뒷표지에는 예수 강림을 묘사한 도레의 판화와 함께 전세계 독자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인사가 쓰여져 있다.

— 어린이란 표지 —

사진 : 스티브 번더슨

일 반

대관장단 성탄절 인사	1
대관장단 메시지 :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2
“가족과 함께 있었다” :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로서의 요셉 스미스 브렌트 엘 탐	8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 목판화—구스타브 도레이	16
베트남에서의 크리스마스 존 엘 마이센바흐	24
감독으로서 첫번째 성탄절 마빈 케이 가드너	26
또 다시 받은 선물 레베카 스트랜드 루슨	40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열 두 증인들 조셀 필딩 맥콩키	42

청 소 년 란

진정한 선물을 줌 레베카 러셀	32
물론 휴게소 래리 에이 힐러	34

정 기 특 별 기 사

방문 교육 메시지 : 이웃을 위해 기쁘게 봉사함	25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구유에 누이신 주 한인상 장로	65
교회 및 지역 소식	66

어 린 이 란

신약전서 예수님의 강림 일정 쇼나 엠 가와사끼	50
예언자 요셉 스미스 : 어린이들의 친구 수잔 아링던 매드센	52
노래 : 사무엘이 예언했네 마벨 존스 가보트와 터보그 로울리	55
함께 나누는 시간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버지니아 피어스	56
기쁜 소식 매리 리크조 할	58
성탄절을 위한 공작 놀이 제인 케이 프리워	61
대관장단이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62

1992년 12월호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21권, 제29권, 제12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2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 1992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2992 320

Printed in Korea 12/92

대관장단 성탄절 인사

하 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며
본분께 온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는 때입니다. 이
축복된 절기에,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시도록 권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하고 새로운 별이 나타났으며 동방
박사들이 그 사실을 알았고 또한 예언자들이 기뻐하였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 : 27)라고 평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절기에 주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과 위로를 받도록 축복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원합니다. □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아 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참으로 기쁜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설명하는 경전 구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짧은 말씀 속에는 온 세상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골”, 찬송가, 1985, 136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마태복음 1:18) 마태는 이렇게 그의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마가복음 1:1)라고 담대하게 간증하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구세주의 삶에 관해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누가복음 1:3) 살폈다고 기록한 다음,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간단하고도 아름다운 문구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또한 “사관에 있을 곳이 없”(누가복음 2:7)어서 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천사들이 선포한 다음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화가: 신시몬, 캔버스, 유채, 19세기, 그리스도 탄생, 베들레헴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시던 주님의 모범을 생각한다. 주님은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갖고 그분께 온 인류를 모으는 일을 돕기를 바라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요한은 구세주의 전세의 존재와 창조자로서의 위치에 관해 밝히면서 그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3, 14)

이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증거한 간증으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서반구에 살고 있던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신세계의 간증이 담긴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니파이삼서 11:7)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같이 소개하신 후, 부활하신 주님이 하강하시더니 백성들 가운데 서시어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파이삼서 11:10~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은 여러 가지 기록과 간증 외에도 우리가 이달에 탄생한 분으로서 기억하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가 기록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리와 성약 76:20, 22~23)

이 모든 간증에 우리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버지의 장자이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요 고대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시며, 유대 땅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신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는 분이시요 복음 교사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구원의 근원이시며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사랑을 보여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주님의 계명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황금률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 절기에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사이에는 친절한 분위기가 감돌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며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와 존경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운 마음과 신중한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열망이 더욱 크게 퍼져 갈 것입니다.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뜻밖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분은 저에게 그 편지를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힝클리 부대관장님,

“저는 한 시간 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딘가에 주님을 위해 선교 사업을 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나 돈이 부족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선교 사업을 하도록 필요한 돈을 제가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부대관장님은 아실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돈을 부대관장님께 보내 드려 그 젊은이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들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여 아내에게 방금 경험한 일을 들려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3천 달러짜리 수표를 동봉해 드립니다. 제 마음에는 필요한 돈이 4천 달러라는 느낌이 들지만, 당장은 이것이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1월 27일에 나머지 천 달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아내와 세 딸을 위해 부업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집을 구입하고 첫달치 할부금을 낼 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5년 동안 노력했으며, 주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는 저희 부부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제단 위에 올려 놓을 준비를 하라는 표시를 주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은 선교사들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밤 저는 주님이 제단 위에 그 돈을 올려 놓으라고 요청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종자이며... 아내는 성약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열 세 살 때 고향인 베이루트(레바논)를 떠나왔습니다. 열 한 살 때부터 참된 종교를 찾고자 꿈꾸어 오다가 그후 13년이 지나서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성스러운 힘에 의해 구제받았습니다.

한 의과 대학생은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기금을 위하여 헌금함으로써 그가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려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에는... 단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과 대학에 입학하려는 희망이 좌절되었지만, 그때에도 제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언젠가는 제가 의사가 될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미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다녔으며, 그후 당시에는 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또 다른 의과 대학을 다녔습니다... 1년후 저는 기적적으로 교회 서적을 읽게 되었으며 또한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후에 아내를 만나 3개월 뒤에 저희는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부대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주님에게 4천 달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생활을 영위하도록 눈과 손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부대관장님이 교회 지도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사용하시도록 이 돈을 부대관장님께 맡깁니다... 저희는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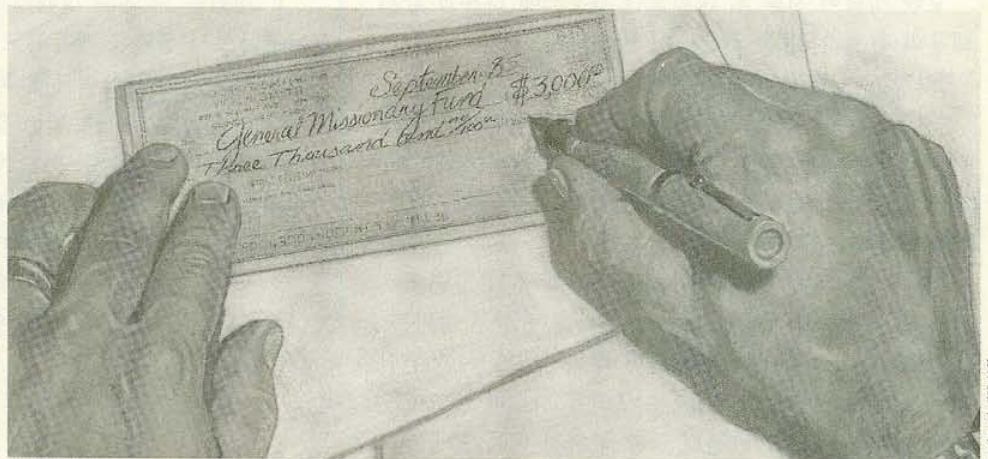
“하나님께 봉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그리고 나서 이 형제님은 그의 아내와 함께 편지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저의 부족한 어떠한 말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탄절의 정신이 숨쉬고 있으며, 황금률의 표본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 인류를 위한 희생으로 바치신 분의 사랑을 잘 전해줍니다.

황금률에 따라 생활하는 또 다른 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한 젊은 여인을 도와 줌으로써 사랑의 봉사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는데, 이 친절한 행위에 대해 먼 훗날 특별한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일은 오래 전, 사람들로 무척이나 붐비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심한 폭풍이 불어 비행기 출발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그곳에 발이 묶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초조해 하며 짜증스러워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 살 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지저분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의사가 몸을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선 절대로 안된다고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서 있는 줄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배고파 칭얼거리며 우는 아이를 발로 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비난을 했으나, 어느 누구도 도와 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여인에게 다가와 만면에 미소를 띤 채로 친절한 음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저분한 차림을 한 채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서 주머니에서 껌을 한 개 꺼내더니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달콤한 껌맛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남자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여인을 줄 맨 앞으로 데리고 가서 탑승 수속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더니 곧 여인을 위한 탑승 수속을 마쳐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인과 아이에게 빈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인파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여인은 미시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대관장단 사무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한 통 전달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김볼 대관장님께,

“저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서독 뮌헨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얼마 전에 귀환하였는데, 참으로 사랑스러운 선교 사업이었으며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난 주 신권회에서 대관장님께서 약 21년 전 시카고 공항에서 베푸신 사랑의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대관장님께서 한 임신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 표를 구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뒤에 서서 어쩔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유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 올려서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네 번이나 유산을 했기 때문에 의사가 몸을 구부리거나 무엇을 들어 올리지 말라고 한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관장님께서 우는 아이를 달래 주시고 줄 서 있는 다른 승객들에게 여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의 어머니는 긴장감과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개월 후에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관장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범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라고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자주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은 진실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성탄 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교사요 왕이시며,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운 절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기심을 버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며 봉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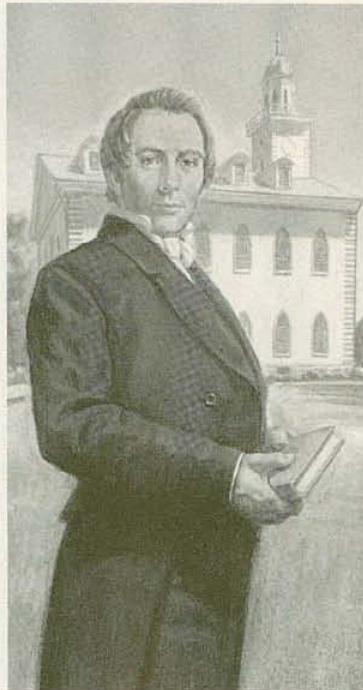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경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세상에 태어나셔서 성역을 베푸시고 부활하셨으며 말일에 세상을 방문하신 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2.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주님의 계명 한 가지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는 것이다.
3. 만일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이 계명을 자주 실행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있었다”

브렌트 엘 탐



말 일성도로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을 굳게 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에 관하여 권고하는 말씀을 종종 듣는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영원히 설 주님의 왕국, 111쪽)라고 말씀하셨으며,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행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업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영원히 설 주님의 왕국, 134쪽)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현대 사회가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다. 최근 대회에서 벤슨 대관장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및 자녀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가정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고 예언자들이 하신 이러한 간곡한 말씀은 20세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 또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영원한 계획 안에서 가정 생활이 차지하는 가장 적합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회복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비롯하여 얼마 되지 않은 수에 불과했다. 요셉 스미스는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리를 하늘로부터 직접 배웠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용과 염려를 통해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실천에 옮겼다는 데 있다.

한동안 예언자의 집에서 살았던 벤자민 에프 존슨은 요셉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훌륭한 아들이었으며,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한 형제였으며, 아내와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던 가장이었다.”(조지 에스 깁스 장로에게 보내는 벤자민 에프 존슨의 편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과에

소장된 소책자, 4쪽)

가족에 대한 예언자 요셉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모든 말일성도는 예언자들이 권고한 바와 같이 해의 영광의 아들 딸이자 형제 자매요 남편과 아내가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다는 결의를 굳게 할 수 있다.

부모에게 순종함

청년 요셉은 사도 바울의 다음 훈계에 따라 생활하였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에베소서 6:1). 요셉은 부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다.

요셉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였다. 그는 1834년 3월 27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집에 있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부모에 대한 그의 사랑은 어린 시절의 일화를 통해 잘 엿볼 수 있다. 어린 요셉은 다리에 심각한 병이 생겨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다. 몇 주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으며, 의사들의 치료도 여러 번 실패하고 말았다. 마침내 의사들은 그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어린 요셉과 그의 어머니의 반대가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술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요셉을 침대에 묶고, 통증을 잊을 수 있도록 포도주나 브랜디를 마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다음 기록을 통해 요셉이 아버지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어머니에게는 애정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셉은 ‘아뇨,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줄로 묶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침대에 앉아 저를 꼭 껴안으신다면 뼈를 꺼내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어요.’라고 말한 뒤 나를 쳐다보며, ‘어머니, 이 방에서 나가 주세요.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시면 못 견디실 거예요. 아버지는 견디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간호 때문에 오랫동안 제 곁을 떠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지칠대로 지치셨어요.’ 나의 얼굴을 쳐다보는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요셉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방을 나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도와 주시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가 있어요.’”(루시 맥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생애*, 프레스톤 니블리 편, 슬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58년, 57쪽)

그후, 1820년 어느 봄날, 첫번째 시현을 본 후에 숲속에서 나온 젊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참된 속성에 대해 알게 된 사실과 앞으로 있을 복음의 회복에 관해 받은 메시지를 맨 먼저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 3년 후 그가 모로나이 천사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가족에게 이야기했을 때를 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시거나 인간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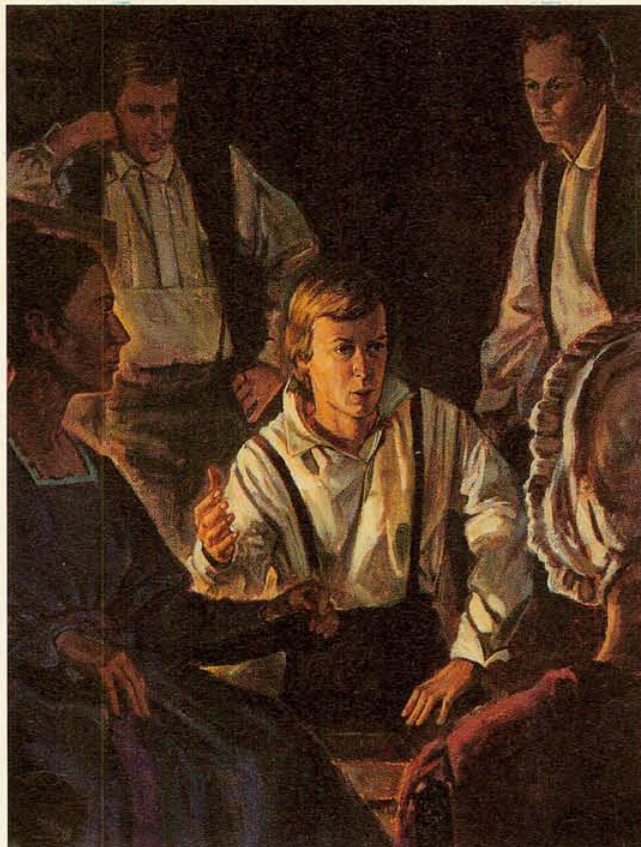
구원과 구속의 계획에 관한 더욱 온전한 지식을 알려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으며, 우리 집에는 더없는 조화와 행복이 넘쳐 흘렀고, 우리들의 마음은 매우 평온하였다.”(*요셉 스미스의 생애*, 82~83쪽)

가족들을 위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고 가족들이 복음 원리에 따라 계속 생활할 때 오늘날의 말일성도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행복과 평온이 충만할 것이다. 복음은 실제로 가족을 위한 것이다.

주님은 가족을 영원히 결합시키기 위해 복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요셉에게 가르치셨다.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은 다음날 아침 요셉은 들에서 아버지와 형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전날 밤의 일로 인해 몸이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일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요셉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 챈 그의 아버지는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쇠약해진 요셉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과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곳에 앉자마자 모로나이 천사가 그에게 다시 나타났다. 그 하늘의 사자는 맨 먼저 “왜 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라고 명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요셉이 “제 아버지가 믿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모로나이 천사는 요셉에게 “네 아버지는 너의 말을 모두 믿을 것이니라”(요셉 스미스의 생애, 119쪽)라고 약속하였다.

모로나이는 요셉에게 그의 경험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그의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였다. 요셉의 그러한 경험과 지식은 그의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들도 축복받고 승영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일로 하여 부모에 대한 요셉의 사랑과 그들이 자신을



거룩한 숲에서의 경험에 이어 소년 요셉은 새롭게 얻게 된 지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었다.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굳건하여졌다. 모호나이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요셉 스미스서 2:50) 일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이 젊은 예언자 요셉의 삶이 시련으로 점철되는 동안에도 그의 부모가 신앙과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요셉은 1835년 그의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것과 관련하여 주님께 애절히 간구한 다음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부모의 끊임없는 지지와 충실함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오늘 하루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지지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를 간호하였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부모님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통해 가장 유익한 권고를 해주신다.”(교회 정사, 2:289)

요셉은 예언자며 교회 대관장으로서의 책무로 인해

가장 바쁜 때에도 가족과 부모에게 매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아브라함서의 번역을 막 시작할 당시인 1835년 10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쓴 그의 일지에는 부친에 대한 염려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어떤 일보다도 부친의 건강이 더 중요했다.

“8일, 목요일—집에 있었다. 아버지를 간호하였다. 몹시 걱정이 된다.

“9일, 금요일—집에 있었다. 아버지를 간호하였다.

“10일, 토요일—집에 있다가 아버지를 방문하였다. 건강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11일, 일요일—오늘도 아버지를 간호하였다. 아버지는 몹시 편찮으시다. 아침에는 혼자서 기도하던 중에 ‘내 종아, 네 아버지는 살 것이니라.’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저녁 나절에 데이비드 휘트머 형제님이 오셨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였으며,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병을 꾸짖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으며 우리의 기쁨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교회 정사, 2:289)

부모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마찬가지로 형제와 자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지속되었다. 말형인 알빈에 대한 그의 존경과 염려가 그 한가지 예이다. 알빈은 1823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전에 요셉과 하이람에게 그가 부모를 위해 시작했던 집 건축을 꼭 완성해 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그런 다음 알빈은 요셉에게 복음 사업을 충실하게 계속하라고 권고하였다.(요셉 스미스의 생애, 86~87쪽 참조) 요셉은 형 알빈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알빈에 대한 요셉의 깊은 사랑과 존경심은 요셉 스미스의 생애의 1842년 8월 22일자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형이 숨졌을 때 내 젊은 가슴에 가득 차 여린 심장을 터뜨려 버릴 것만 같던 슬픔과 번민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형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 많이였으며 가장 훌륭했었다. 형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요셉 스미스의 생애, 333쪽)

1836년 1월 21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시현으로 “하나님의 해의 왕국”(교리와 성약 130:1)에 거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아브라함, 나의 부모님, 그리고 오래 전에 죽은 나의 형 알빈을 보았느니라.”(교리와 성약 137:5)

요셉은 동생인 돈 카로스가 숨졌을 때에도 깊은 슬픔에 빠졌다. 후에 에브라임 마르크스의 장례식에서 행한 말씀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절망감을 이야기하였다. “너무나 엄숙하고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처럼 엄숙함을 느껴 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숨졌던 저의 만형 알빈과 나부에서 숨졌던 막내 동생 돈 카로스 스미스가 생각납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이 젊은 형님과 동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서 지지와 위안을 얻었지만 더 이상 그러한 지지와 위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요셉 스미스의 생애, 333쪽)

“더 큰 사랑”

요셉은 또 다른 동생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사랑하는 형과 동생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을 겪어야 하는 경험을 했다. 표면상 사소한 이견으로 인해 요셉의 동생인 윌리엄은 그에게 적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 불평하게 되었다. 다른 배도자들과 함께 그도 요셉을 “타락한 예언자”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 안에서 가장 큰 해악을 입게 되었다. 요셉은 윌리엄이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난 이후의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윌리엄은 집으로 가서 형제들에게 사악한 행동을 계속하였으며, 특히 동생인 사무엘이 선입견을 갖고 나를 적대하게 하였다. 얼마 안있어 나는 윌리엄이 길거리에서 나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다닌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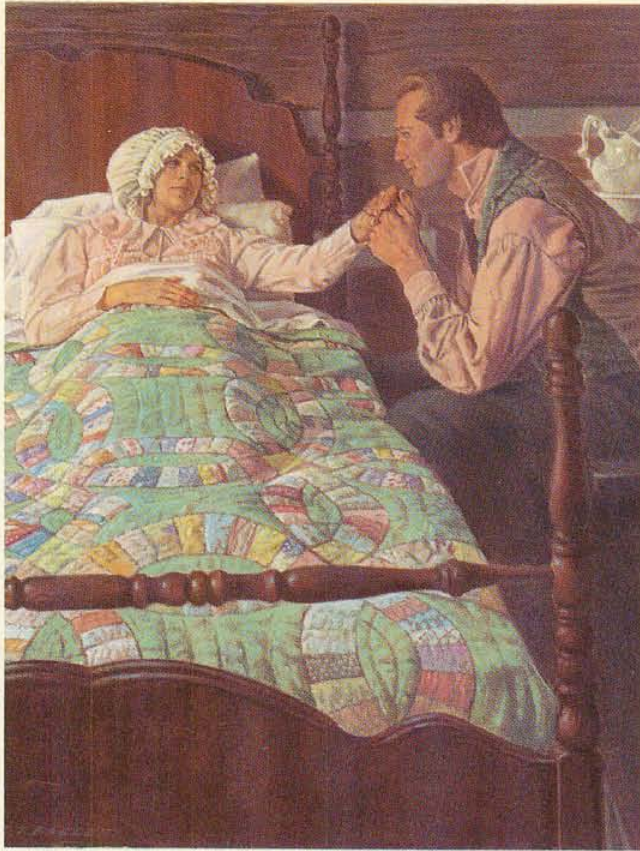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의심할 나위 없이 나의 적대자들은 이것을 가장 좋아하였다.”(교회 정사, 2:297) 자신을 적대시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동생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복수심이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내하고 더욱 용서하였다. 윌리엄에 대한 그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지혜로운 권고를 가장 잘 따른 것이었다.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저로 내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교리와 성약 121:43~44)

윌리엄이 배도하여 그의 형인 예언자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다니던 직후에 요셉 스미스와 가진 한 모임에 참석했던 다니엘 타일러는 불순종에 빠진 동생으로 인해 요셉이 괴로워하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감명깊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그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의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잠시후 찬송가 한 곡을 부른 뒤 그는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예언자는 청중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앉아 머리를 무릎에 댄 채 벽을 향해 있었다. 아마도 슬픔과 눈물을 감추기 위해 그런 것 같았다.

“그가 타락하여 죄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올바르게 볼 수 있기를 빌었다. 그 기도에는 하늘의 지식과 설득력이 들어 있었다.”(주비나일 인스트럭터, 1892년 2월 15일, 127쪽)

요셉이 가족의 영적인 결속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그럼으로써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차게 한 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인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그는 동생 윌리엄이 자신과 교회에 끼쳤던 해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도와 주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



로버트 티 배럿 그림

요셉이 아내인 엠마를 얼마나 염려하였는가는 그녀가 병들었을 때 시중들고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등 밤새도록 간호했던 데에서 알 수 있다.

형제나 친구나 교회 지도자들간에서도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 사이에서 보다 더 강한 사랑과 유대는 없었다.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저는 모든 형제님들이 저의 사랑하는 형님인 하이람과 같이 되기를 마음깊이 기원합니다. 형님은 양의 온순함과 옅의 온전함,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양을 갖추신 분입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더 형님을 사랑합니다. 저나 형님이나 서로를 비난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교회 정사, 2 : 338)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언자 요셉과 같이 자신의 형제 자매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행복해질 것이며 그들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엠마”

요셉 스미스는 아내 엠마와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해의 왕국에서의 가족 관계에 관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예언자 요셉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은 요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가족과

친구들”이었다고 말했다.(존슨의 편지, 4쪽 참조) 이 두 좌우명은 요셉의 생애에서 조화를 잘 이루었다. 이것은 요셉이 경험과 계시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이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요셉은 결혼 초기에 주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몰몬경 번역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요셉은 모든 젊은 부부들이 자주 그러는 것처럼 엠마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2층에 있는 휘트머의 집으로 올라가 몰몬경 번역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그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캄캄했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숲속에 들어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엠마에게 용서를 빌고 돌아온 다음에야 주님의 영이 임하여 비로소 번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사 요해, 1 : 130~131 참조)

예언자는 시현을 통해 결혼 생활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완전히 사랑하고 소중히 대하며 충실하라고 그토록 간절히 가르쳤던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엠마와 자녀들에게 보인 그의 사랑은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그의 굳건한 확신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요셉과 같은 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가 말일성도 남편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잘 돌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세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하고 있다. 루시 워커 킴볼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해야 할 느낌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부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장 가깝고 존귀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자들은 자신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부활의 아침에 눈을 뜰 때 슬픔과 실망이 가득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법으로 인해 아내와 자녀와 함께 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그들은 예언자를 알았다, 하이렘 엘과 헬렌 메이 앤드러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74년, 139쪽)

예언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한 가지 경험을 통해 젊은 벤자민 존슨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그는 요셉과 담소를 나누며 앉아 있었다. 그때 요셉과 엠마 부부의 두 아들이 방안으로 들어왔는데 “둘 다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며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요셉]은 아이들을 가리키며 내게 ‘벤자민, 이 아이들 좀 봐요. 내가 이 애들의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존슨 형제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보기에 엠마는 예언자의 마음과 그의 가정에서 여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존슨의 편지, 4쪽)

요셉은 자신이 가르친 것을 반드시 실행했다. 그는 사랑하는 부부간의 결혼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다. 그가 엠마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던가는 엠마가 병들었을 때 그녀의 시중을 들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등 자신의 아내를 간호하던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는 1842년 10월 2일자(일요일)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아내가 계속해서 많이 아팠다. 나는 아내와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 10월 6일 목요일의 일기는 그가 엠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며 그녀의 복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 주고 있다. “주께서 아내를 하루 빨리 가족에게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이 주님의 종이 다시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교회 정사, 5 : 167~168)

요셉이 엠마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교회 사업이나 박해나 억울하게 투옥됨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을 때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가족과 함께 했으며, 그들과 가까이 있기를 갈망했다.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사업을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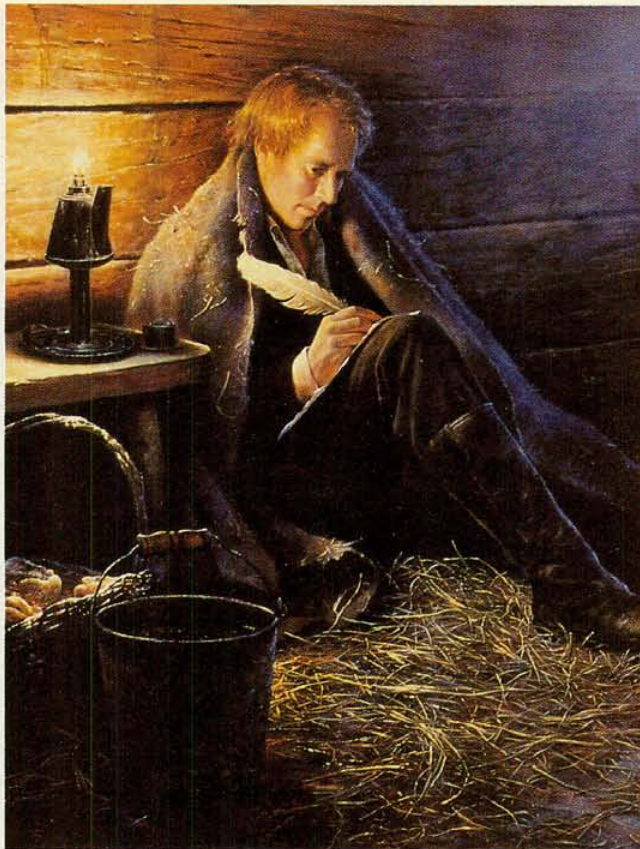
동안에도 요셉은 언제나 가족과 가족의 복지를 염려하였다. 1823년 10월 뉴욕 주와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위해 가는 동안 그는 이렇게 적었다. “기분이 매우 좋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나 가족이 매우 염려스럽다.”(교회 정사, 1 : 419)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은 가족에 대한 깊은 염려를 기도로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호소한 결과 교리와 성약 100편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를 받았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희 가족은 평안하도다. 저들은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마음을 놓으라.”(교리와 성약 100 : 1~2, 15)

뉴욕 주에서 행한 선교 사업 초기에 요셉은 엠마에게 편지를 써서 큰 도시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멋진 건물들과 거대한 기계들에 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가 정작 열망한 것은 세상의 신기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보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본 후에 나는 목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집에 있을 엠마와 딸 줄리아에 대한 생각이 붓물 터지듯 머리속에 떠오르며, 잠시라도 그들과 같이 있기를 소망하였다. 내 가슴은 온통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느낌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요셉 스미스의 개인 문집, 던 시 제시 편, 솔트레이크시티 : 테저렛 출판사, 1984년, 253쪽)

요셉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슬픔과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다. 그는 목숨을 노리는 폭도들을 피해 그토록 자주 숨거나 격리되어 생활해야 하는 것이 매우 슬펐음에 틀림없다. 한번은 친구들이 요셉을 다른 은신처로 옮기고 있는 도중에 그는 자기의 집앞으로 지나가기를 고집했다. 근처에 폭도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요셉은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자녀들의 잠자리 곁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짧은 기도를 드렸다. 자녀 한 명 한 명과 사랑하는 아내 엠마에게 입맞춤을 한 뒤에 밖으로 나가 새로운 은신처로 향했다.(이 세실 맥거빈, 요셉 스미스의 가족,



폭도들을 피해 숨어 있거나 불결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엠마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었다.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3년, 138쪽)

또 한 번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던 중에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관한 감명깊은 글을 적었다. 그는 아내 및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를 몹시 열망했던 것 같다. 그러나 박해가 끝날 때까지 그는 가족들을 몰래, 그것도 잠시 동안 밖에는 만날 수가 없었다. 엠마가 잠시 몰래 방문한 뒤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날 밤 내 젊은 시절의 아내로 늘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사랑하는 엠마의 손을 잡았을 때, 내 가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솟구쳤다. 나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피곤과 노고와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위안 등 갖가지 일들이 떠오를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아! 그 의연하고, 든든하고, 조금도 흔들림없고, 변함없고, 사랑스러운 엠마가 여기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가!”(교회 정사, 5:107)

폭도들을 피해 숨어 있거나 불결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엠마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위안을 얻었으며, 역경을 견디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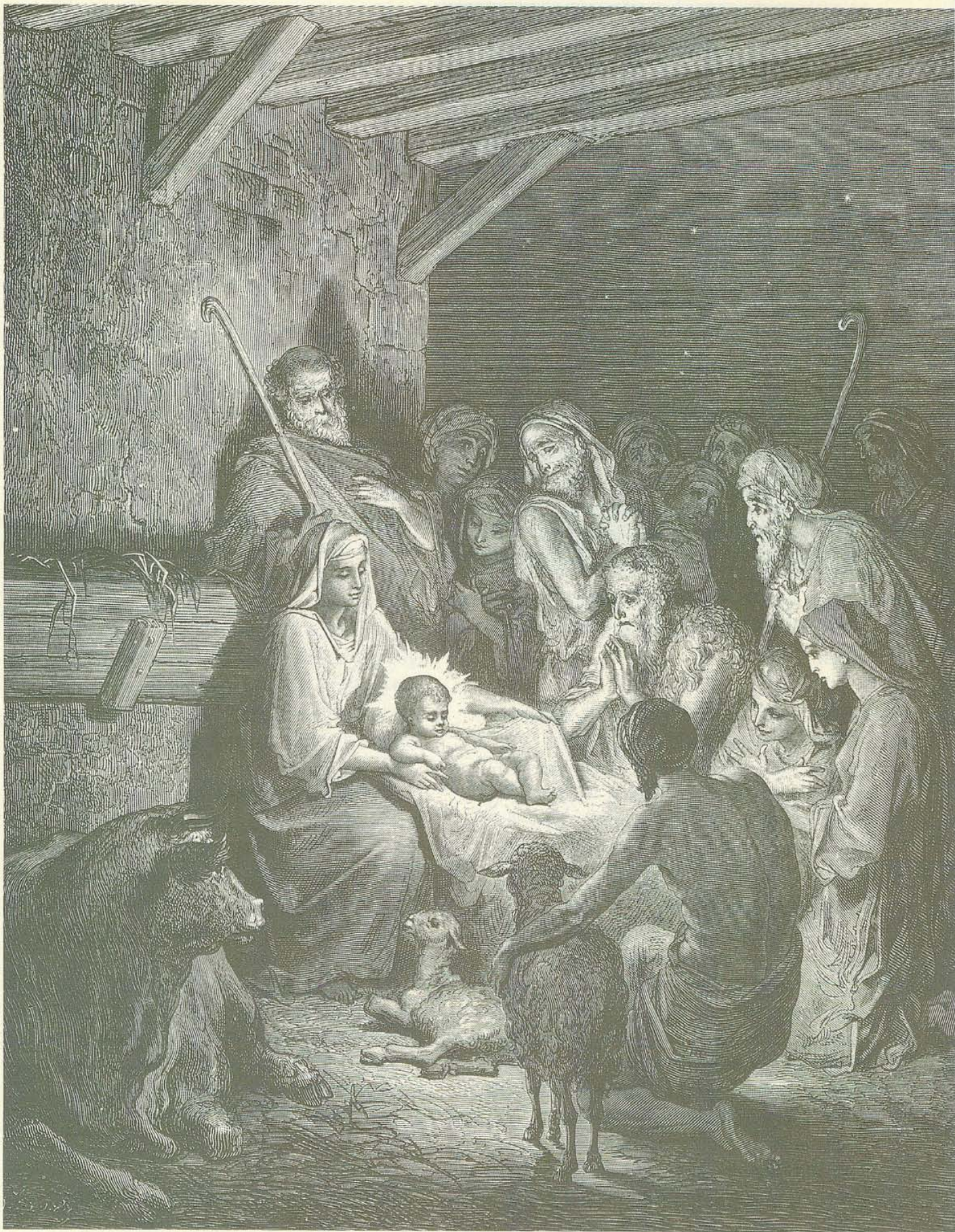
얻었다.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고난의 시기에 그의 사랑은 의심할 나위 없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역시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때가 요셉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1834년 3월 27일—집에 있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교회 정사, 2:44)

오늘날에는 가족을 떠나 가정 바깥에서만 긴장을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자와 그의 가족간의 사랑에 찬 관계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38년 8월에 “최근에 많이 쌓인 피로와 힘든 책무” 때문에 “재충전” 하기 위해 집에서 가족과 사흘 동안 함께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교회 정사, 3:55쪽 참조)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로서의 성공은 그가 예언자로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우리에게 급속도로 압력을 가해 오는 물질주의적인 현대 세상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혼동하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모범을 통해 우리의 생애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곳도, 가장 위대한 봉사를 행할 수 있는 곳도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요셉 스미스의 업적과 훌륭한 성품을 통해 모범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그가 훌륭하다는 것의 특징, 곧 그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도 훌륭해질 수 있게 하는 그 특징은 예언자의 일지에 자주 나오는 다음의 짧은 한 마디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가족과 함께 있었다.”(교회 정사, 4:550) □

브렌트 엘 탐은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조교수로서 교회 역사 및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마태복음 2:9)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누가복음 2:16)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

목판화—구스타브 도레이

프랑스의 구스타브
도레이(1832~1883)의
작품에는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의 사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구세주의 생애와 관련된 이
작품들은 신구약 전서를 바탕으로
도레이가 그린 241점의 작품 가운데
일부이다.

도레이의 성경은 종교화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전의 화가들, 특히 15~18세기의
위대한 화가들은 대부분 성경의
사건들이 마치 자신의 나라나 시대에
일어난 것처럼 자신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그려 왔었다.
그러나 도레이는 그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그리지 않고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상의 문화, 의복, 동·식물,
건축물 및 풍경을 연구하고 이들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도레이는 극적이고 웅장한 장면
뿐만 아니라 수수하고 세밀한
순간까지도 작품화하였다. 그는 또한
작품 속에 사실주의와 열정을
불어넣음으로써 이야기들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다.

도레이가 사용했던 예술 분야는
목판화로, 이는 당시인 19세기에
책에 그림을 삽입시킬 때 일반적으로
쓰던 과정의 하나였다. 먼저
도레이가 목판에 그림을 그리면
조각사 한 사람이 그 목판의
그림대로 깊이와 넓이를 조절하여
조각함으로써 도레이의 그림을
재생시킨다. (도레이의 작품
아래에는 그와 조각사의 이름이 나와
있다.) 다음에는 전기 제판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원래의
목판에서 금속판을 떠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작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그림을 복사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금속판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인쇄한다.

도레이의 성경은 1865년에 제1권이
나왔다. 이번호 성도의 벗에 게재된
그림은 1866년 판에서 발췌한
것이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마지막 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표현한 도레이의 작품들을
추가로 실을 계획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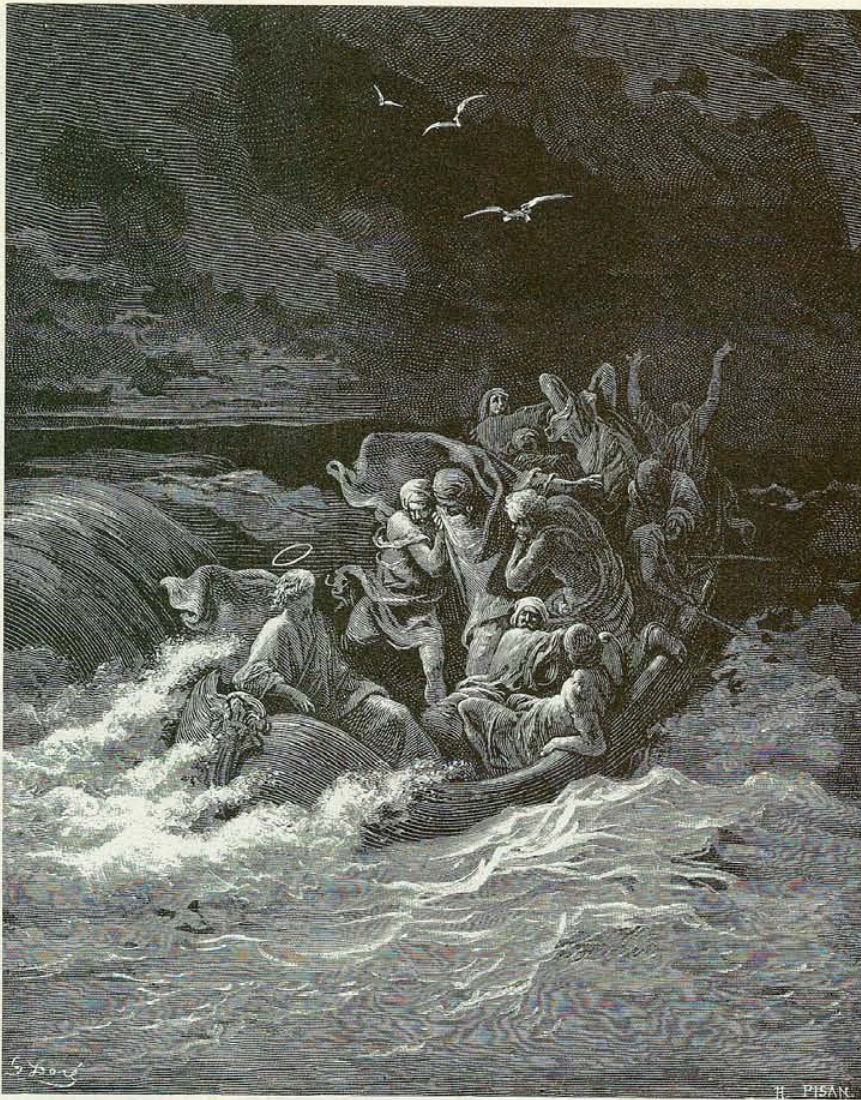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7, 13~14)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3:54~55)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누가복음 2:46~47)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마태복음 15 : 30)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누가복음 8 : 54~55)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 : 3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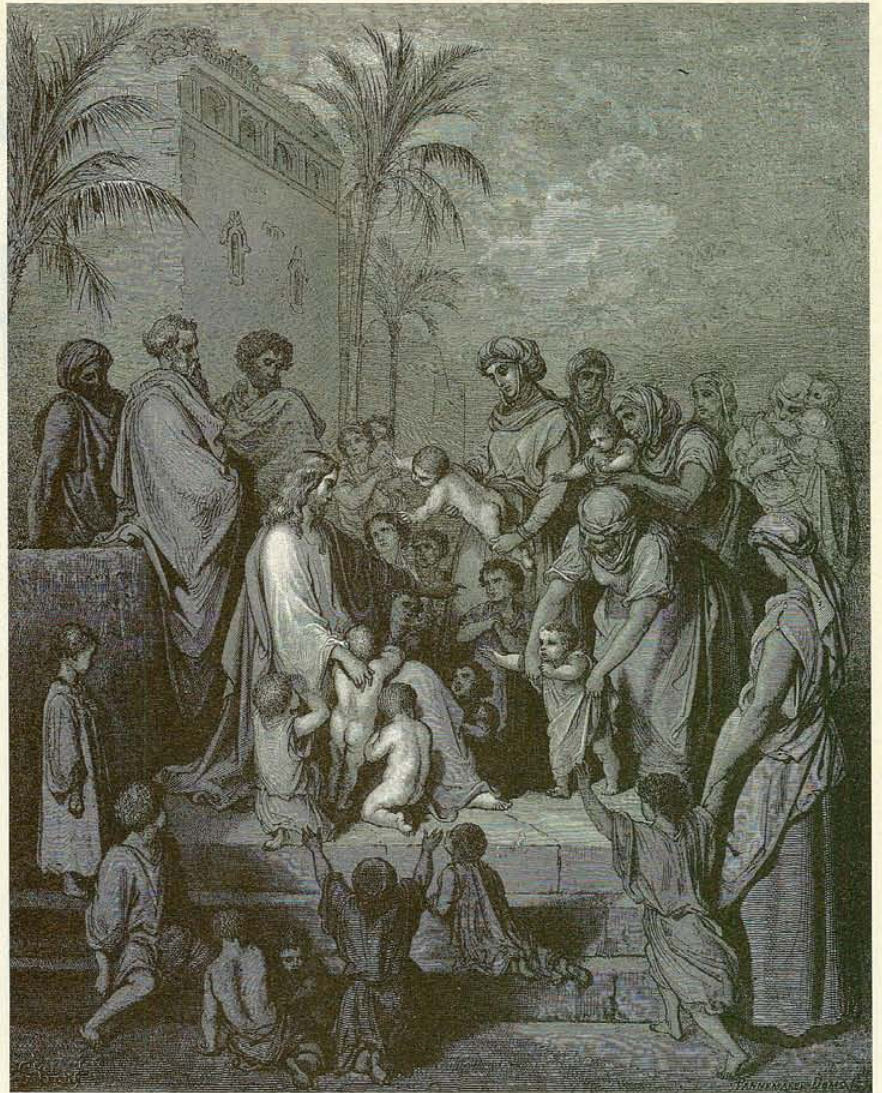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마태복음 17:1~3)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복음 10:38~39)



사람들이 예수의 만저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가복음
10:13~14) □



베트남에서의 크리스마스

존 엘 마이센바흐

나는 매년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나타내는 조각품과 그 외 다른 전통적인 장식물들을 꺼낼 때마다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끼며, 또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천사의 조각품을 꽂을 때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게 된다.

때는 1970년 12월 22일, 나는 남베트남의 송베 마을 근처의 정글 속에 있었는데, 그날 우리는 물자 보급용 헬리콥터들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서 착륙할 자리를 만들고 음식과 물과 군수품 등의 보급품들과 무엇보다도 집에서 보내온 편지와 소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부하들이 그들 몫의 군수품과 우편물을 받도록 한 후에 내게로 온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다. 편지 가운데는 4주일 전에 발송된 것도 있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으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괴로웠다. 베트남에 온 지도 벌써 335일이 지났으며, 그 대부분의 날을 전투를 치르면서 보냈다. 나는 감정이 무디어졌으며



인생에 좌절감을 느꼈다. 그 날은 크리스마스 3일 전이었는데 나는 내 임무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29일이 남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치러야 할 마지막 전투가 잘 끝나서 부하들과 말은 책임들을 잘 넘겨 줄 수 있기를 바랐으며 또 후임으로 올 장교가 부하들을 잘 대해 줄 사람이기를 원했다.

아름답고 하얀 천사가 들어 있던 그 상자를 열어 보기 전까진 나는 크리스마스나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것은 크기가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하얀 옷을 입은 금발의 천사로서 뮤직 박스 위에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을 탄약통을 뒤집어 놓은 위에다 얹어 두고 어머니가 보내 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며 평온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전해 주셨다. 나는 영적으로 고양되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릴 때에도 어머니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주셨지만 그때처럼 강하게 그리스도의 영을 느낀 적이 없었다.

편지에서 눈을 떼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나는 부하 몇 명이 그 하얀 옷의 천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뮤직 박스의 태엽을 감았다. “고요한 밤”이 울려 퍼지고 하얀 천사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는 동안 모두들 조용히 있었다. 우리를 에워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말없는 교감이 오고 갔다.

후에 귀향을 위해 짐을 꾸릴 때 나는 그 천사를 조심스럽게 싸서 배낭 안에 넣었다. 나는 집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였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과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셨던 모든 일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였다. □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비스

방문 교육 메시지

이웃을 위해 기쁘게 봉사함

상 호부조회의 자매로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인 1992년을 기념해
왔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비이기적으로 봉사를 베풀며 따뜻한
감동을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의 정수가 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가짐임

엘레인 엘 잭 회장은 다음과 같이
사랑을 개인적인 마음가짐으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는 어떤
행위의 목록으로서가 아니라
경전에서 그 특성을 정의한 대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즉, 우리에게
훌륭한 느낌을 가져다 주며 평화롭고
기쁨에 찬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매 선교사 두 명이 스페인 북부
어느 도시의 한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울썩느러운 날씨라 그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원 쪽으로
가까이 갈 때 실비아 폴리슨 자매는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폴리슨
자매는 영이 자신에게 “이들은 너의
자매니라.”라고 속삭여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 일에
대해 기록하면서 “마음속이
환해지는 느낌이였다.”고 썼습니다.
폴리슨 자매는 영의 도움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세계적인 자매애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에зра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주었으며 그녀가 숨졌을 때는 그
가족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자비로운 봉사에 참여하였던 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그분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남겨 주고
떠나갔지만 우리는 사랑과 봉사를
베풀 수 있었던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로 뭉쳤습니다.”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는
어떠한 사랑의 모범을 경험했는가?

더 좋은 날이 올 것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영원한
성장과 다른 사람의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2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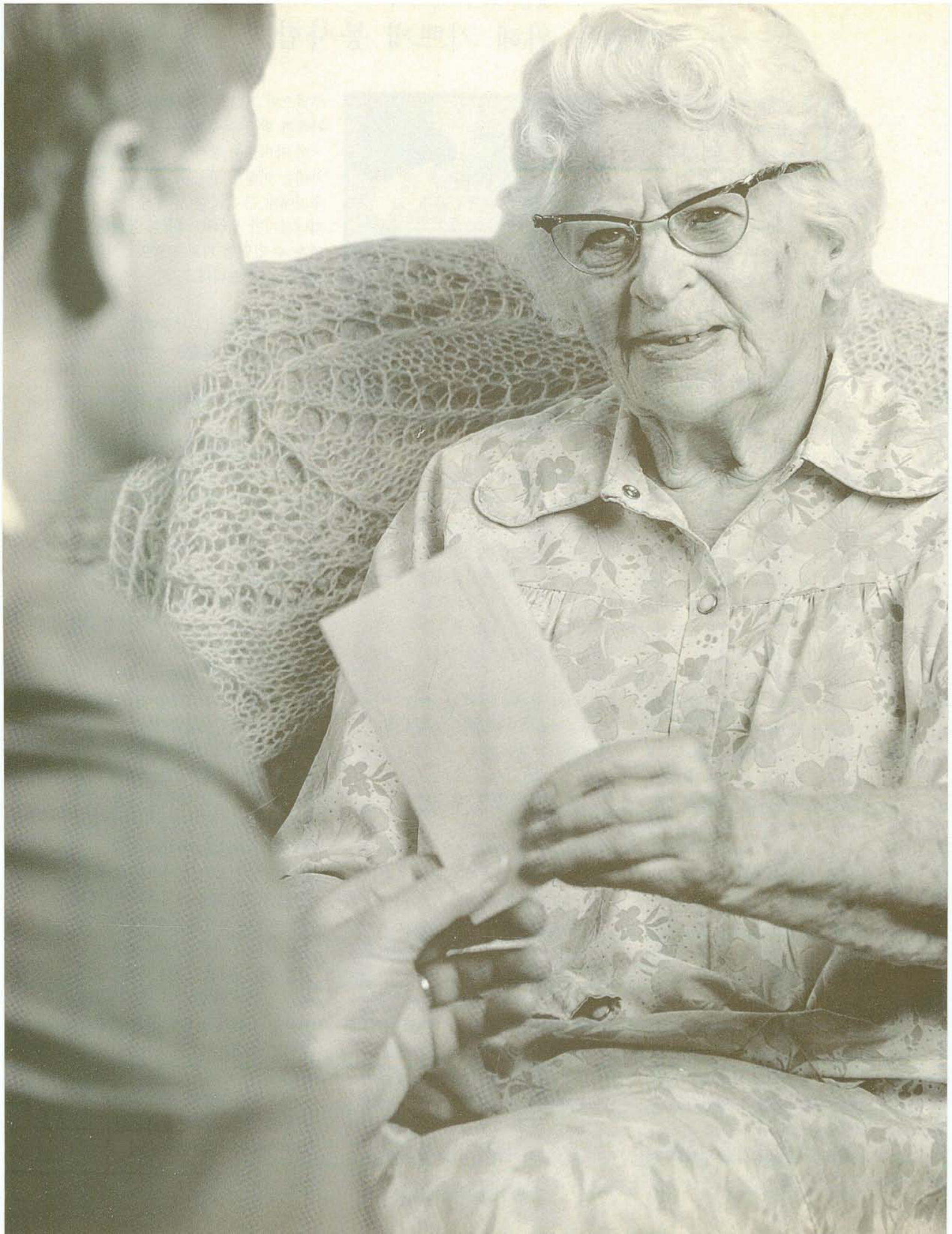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봉사하는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랑은 행동임

최근에 남아프리카의 한 젊은
부인이 암에 걸리자 그녀가 속한
와드의 자매들은 함께 모여 그
가족을 도왔으며 거의 매일같이
식사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자매들은
그녀의 아이들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인의 병이 더욱
중해져 우울해지자 그들은 돌아가며
그녀의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저녁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자매가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매와 늘 함께 있어

1842년, 나부에서는 상호부조회의
초기의 회원들이 궁핍한 자를 찾아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눠 주기 위해
“극빈자 구제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조직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더 나은
날이 시작되며 그들이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의 머리에는 축복이 부여될
것입니다.” (교회 정사, 4: 607)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것은 참으로 더
좋은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이래로
상호부조회의 여성들은 그들의
창고에 있던 밀로 굶주린 자를
먹였으며 그들의 간호와 보살핌으로
생명을 구하였고, 재난이 닥친
지역에 구호 물자를 신속히 보내
주었습니다. 이제 세계 각 지역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이웃에게 크든
작든 사랑이 담긴 봉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매들에게
계속 그러한 사랑에 찬 마음가짐과
행동을 생활의 일부로 삼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에 찬 마음가짐과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 □



감독으로서 첫번째 성탄절

마빈 케이 가드너

사진 촬영: 스티븐 번더슨; 모델이 포즈를 취함

우리는 함께 그 자매님의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자매님은 구십대였으며 나는 삼십대였다. 자매님의 건강 상태와 눈이 오는 날씨로 인해 감독실에서 십일조 결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대신 그 자매님의 집으로 찾아갔다.

자매님은 나에게 종이 두 장을 건네 주셨다. 한 장은 그분이 그 해 동안 현금했던 내역을 손수 적었던 것이고 다른 한 장은 똑같은 내용을 컴퓨터로 뽑은 것이었다.

그분은 “감독님, 보시다시피 제가 기록한 것과 워드 서기가 기록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두 기록에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매님의 실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감독이 십일조 결산 때면 의례 하는 질문을 했다. “자매님, 이것이 한 해 동안의 완전한 십일조입니까?”

자매님은 어쩌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짧은 침묵 끝에 자매님은 짐짓 화난 체하며 나를 꾸짖었다. “감독님, 이제까지 들어본 질문 중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질문이군요!”

그 말씀이 백 번 울렸다. 자매님을 가볍게 꺼안으며 우리는 함께 웃었다. 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또한 그분이

자신의 충실함을 감독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12월에 나는 감독으로서 첫번째 성탄절을 맞았으며, 처음으로 십일조 결산을 하였다. 전에는 십일조 결산과 성탄절, 이 두 행사 간의 아름다운 상호 관계를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이 감독과 만나 지난 한 해 동안의 현금을 결산하는 시기가 성탄절인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충실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부부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나의 사무실로 찾아와 그 해의 수입 가운데 완전한 10퍼센트를 주님께 바쳤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보여 주는 현금하는 마음가짐에 경탄하였다. 그들과 함께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금식 현금 및 선교사 기금 등의 추가적인 현금 내역을 살펴보면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

현금 중에는 액수가 많은 것도 있었고 적은 것도 있었지만, 모두 후하고 기쁘게 바쳐진 것이었다.

나는 회원들이 보여 준 관대함에 대해 감사드렸다. 적은 돈이지만 정성껏 현금해 준 과부와 어린이들에게도 감사했다.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거나 잔디를 깎거나 또는 호박을 수확하여 벌은 돈에 대해 완전한 십일조를 바친 십대들에게도 감사했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독신 성인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젊은 부모들과 좀 더 큰 자녀와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중년 부부들에게도 감사했다. 또 종전보다는 현저히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실업자나 정년 퇴직자에게도

감사했다.

이전에는 베푸는 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임을 그토록 강하게 느껴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가 들어왔다. 그들은 계속 완전한 십일조를 바쳐 왔으며 금식 헌금과 선교사 기금도 후하게 바쳐 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남편되는 분이 “와드 선교사 기금으로 수표 한 장을 더 쓰고 싶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 돈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또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는 감독님이 결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 우리 와드에서는 15명이 선교사로 나가 봉사하고 있었다.)

그 형제님이 수표를 건네 주었을 때 나는 그 추가 헌금의 액수에 깜짝 놀랐다. “두 주 전에도 같은 액수를 헌금하셨죠. 그만큼의 돈을, 그것도 이렇게 자주 주셔도 괜찮습니까?”

그 부부는 다시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다음엔 한 젊은 부부가 여러 자녀를 데리고 나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날 성찬식에서 “인도주의 기금”이라는 자발적인 헌금 항목이 추가로 생겼다는 대관장단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인도주의 기금으로 기부된 돈은 교회 본부로 보내져서 종교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인류를 돕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이 부부는 개발 도상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으며 그곳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많은 액수의 돈을 그 기금으로 내놓았으며 그 돈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믿었다. 나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둘러보고 난 후 다시 그 부부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많은 돈을 내고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려고 하는 걸까?”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더욱 풍성하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자녀들 중에 선교사로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와드 선교사 기금을 후하게 바쳐 온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일반 선교사 기금과 물몬경 기금을 바쳐

왔으며, 또한 건축 기금을 별도로 바치지 않고 십일조로 대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타 바운티폴 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기금을 바쳤다.

또 다른 부부가 들어왔는데, 그들 역시 일년 내내 십일조 및 헌금을 후하게 바쳐 왔다. 접견이 끝날 때쯤 그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감독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와드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와드의 한 미망인을 떠올렸다. 그 자매님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며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정은 어려웠다. 그분은 학업을 계속해야 했으며 밀린 병원 청구서도 갚아야 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부부의 호의를 받을 만한 분이다.

나는 그 자매님을 대신하여 헌금을 받았다. 그들은 그 돈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며 또 자신들의 이름도 익명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남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20달러짜리 지폐 몇 장을 나의 책상 위에 내놓았다. 그가 돈을 내놓는 동안 그의 아내는 다소 미안한듯이 말했다. “많지 않아요. 이젠 애들을 다 키웠는데도 예전처럼 와드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구요. 이걸 우리가 낼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제일 적은 액수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들이 교회 부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웃 사람들과 나이든 사람에게도 조용히 봉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것처럼 관대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다음날 나는 그 돈을 건네 주기 위해 그 미망인의 집에 가면서 다소 난처한 느낌이 들었다. 그 자매님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마음을 상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건네 주면서 나는 그 자매님에게 그 선물에 들어 있는 마음을 전해 주었으며 그같은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받도록 격려했다.



그 자매님은 고맙게 그 돈을 받았다.

“이 돈을 받아들이구 말구요. 저도 사정이 좋을 때는 종종 익명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라고 그분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이 여러 해에 걸쳐 은밀하게 행해 왔던 일에 관해 얘기해 주었다. 열린 칠면조를 사서 손질하여 누군가의 현관문 계단에 두고 왔던 일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익명으로 돈을 우송해 준 일, 가난한 친구의 자녀에게 코트와 부츠를 사 준 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다. 이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차례였으며 그래서 그녀는 그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정중하게 받아들였다.

많은 회원들이 한 해 동안 바쳤던 현금에 대해 생각하면서 또한 그들이 일년 동안 바친 수고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매주 공과를 가르치고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들도 있었고, 봄과 가을에 걸쳐 연로한 회원들의 마당을 청소해 준 청년 청년들도 있었으며, 회원들의 집에 도배하는 것과 페인트 칠하는 것을 도와 준 자매들도 있었다.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힘든 일과 어려운 수리를 해준 장로와 대제사들도 있었다. 여러 번 음식과 물품을 들고 무의탁자 보호소를 찾아가 무의탁자들을 격려해 준 청년과 상호부조회 회원들도 있었으며, 눈이 올 때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를 지어가서 연로한 회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삼으로 눈을 치워 준 청년들도 있었다. 장난감과 책을 모아서 소아과 병원에 갖다 준 소년단 대원들도 있었고 병자와 슬픔에

잠긴 사람과 밖에 나다닐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준 자매들도 있었다. 신권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위로를 베푸는 신권 소유자들도 있으며 감독의 창고를 가득 채우기 위해 교회의 통조림 공장에서 일한 회원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돌보아 주었으며 그들을 영적으로 고양시켜 주는 등, 이처럼 많은 봉사를 은밀하게 했다.

그같은 도움을 정중하고 고맙게 받아들인 분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그런 사람 중에는 아홉 살 난 소년도 있었는데, 다음은 그 소년의 가족이 감독의 창고로부터 식료품을 받은 후 소년이 상호부조회 회장과 나에게 보내온 편지이다.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사랑하는 가드너 감독님과 토마스 자매님께,
“학교에서 막 돌아왔을 때 리키가 먼저 다가와 ‘이게 뭐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키가 보았던 것을 저도 보게 되었어요. 음식... 그것은 바로 음식이었어요! 이곳 저곳에 음식이 있었어요. 음식이 담긴 상자와 자루와 통조림, 그리고 우유와 달걀까지도 있었어요! 리키는 ‘저것 봐! 오렌지가 백만 개는 되겠다!’라고 했어요.

“토마스 자매님, 도와 주신 모든 일에 대해, 특히 감독의 창고에서 이 훌륭한 음식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자매님과 교회(특히 우리 워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소년은 서명하고 편지를 끝맺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막 크리스마스 연례 연극을 끝냈을 때였다. 경전, 크리스마스 캐롤, 의상, 아기 예수 역인 진짜 살아 있는 아기, 세 살짜리 마리아와 여섯 살짜리 요셉, 천사, 목자, 동방박사, 이 모두를 갖추었다.(나는 항상 나귀 역으로 정해졌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산타클로스였다. 그는 큰소리로 웃으며 거실로 들어와서는 아이들 하나 하나를 칭찬해 주고 즐거운 모습으로 커다란 자루를 열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 산타클로스가 우리 와드 회원 중 누군가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선물을 나눠 준 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사라졌다. 어린 두 아이가 자기들끼리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순록을 보기로 마음먹고 현관으로 달려 나갔지만 산타클로스는 아마 큰길 어딘가에 썰매를 세워 두었나보다. 우리는 그가 기분 좋게 이웃집을 지나 눈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 보면서 썰매 방울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 보람된 크리스마스였다. 감독으로서 맞이한 첫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베풀고 받아들이는 즐거운 절기로 만들어 준 많은 와드 회원들과 또 일년 내내 크리스마스의 영을 지녀 온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시고 가장 위대한 선물을 베풀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감사와 사랑을 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홉 살짜리 친구의 표현이 참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





진정한 선물을 줌

레베카 러셀

우리 세미나리 반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면 항상 선물을 교환하였다. 작년에도 우리는 여느 때처럼 선물을 나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전처럼 상대를 준비뿔 수 있을거야. 하지만 가격은 제한을 두어야 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런데 에이미는 이렇게 제안했다. “선물을 사는 대신에 편지 쓰는 건 어때? 우리 지정된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그들이 지닌 훌륭한 특성들을 알 수 있을거야. 그리고 그들에 대해 알게 된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야.”

얼마간의 토론을 거쳐 결국 우리 모두 그 제안에 찬성하였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나는 거의 알지 못하는 소녀의 이름을 뽑았다. 미셸은 내가 속한 여러 반 중 몇 개의 반에 함께 속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세미나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 속한 역사반에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미셸은 수줍어하는 편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복도에서 낯선 사람과 지나칠 때면 항상 따스한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반에서 그녀가 발표를 훌륭하게 할 때 총명한 소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녀의 사랑이었다. 그녀는 세미나리를 마치고 가는 길에 울고 있는 소녀를 보면 감싸 주었으며 장애가 있는 외로운 학생들을 도와 주었다. 이제 그녀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학생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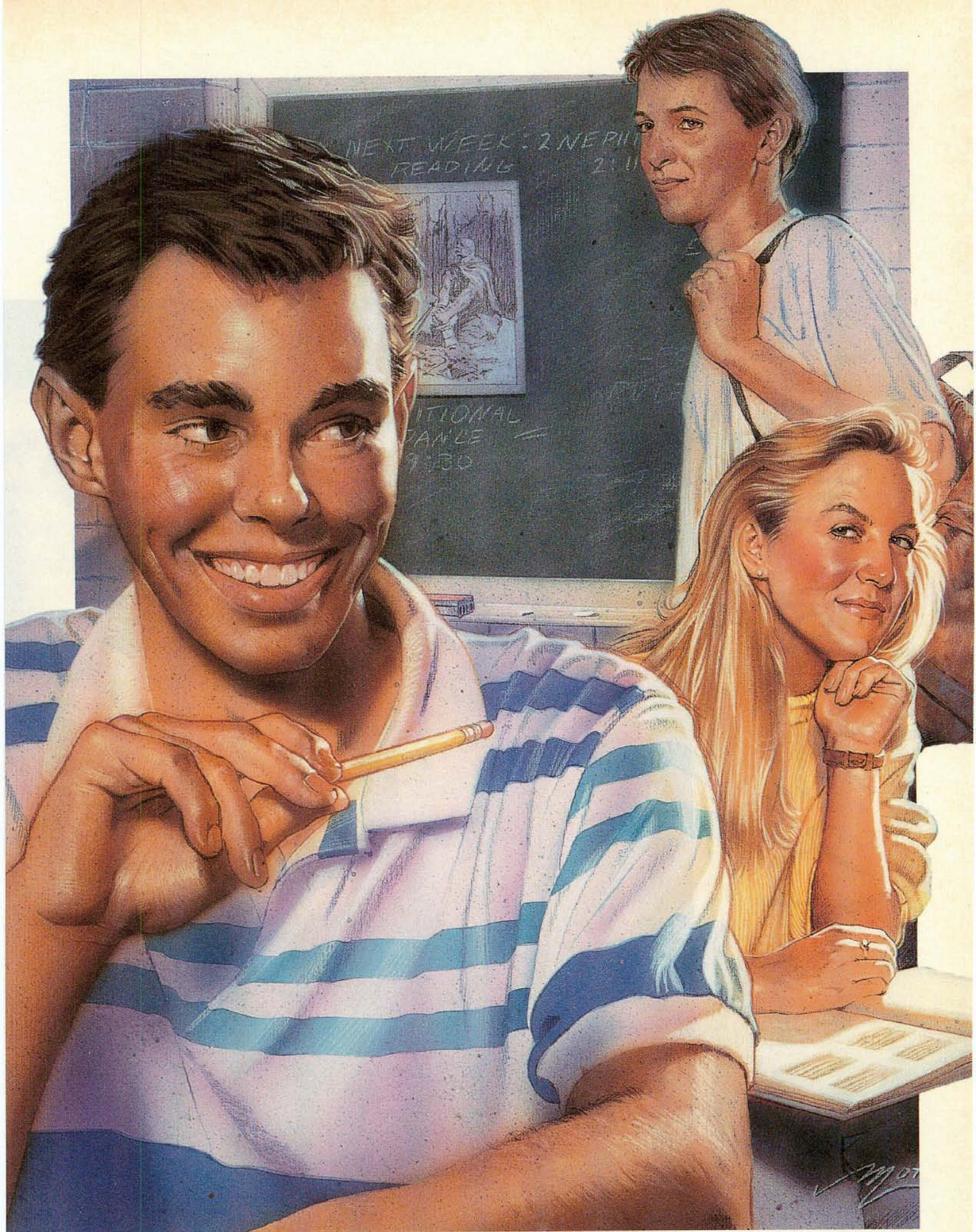
마침내 우리가 편지를 교환해야 하는 날이 이르렀다. 일어나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미셸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느낌을 가졌다.

존은 이렇게 말했다. “글렌이 참여하는 연극 공연을 보면서 더욱 그에게 가까운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렌을 좀더 알기 위해 그의 어머니께 전화할 때까지는 그가 배우란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반의 누군가가 그 연극의 주연을 맡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연극에 대한 그의 재능을 내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빨리 편지로 쓰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한 시간에 걸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누군가를 훌륭하게 여기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앤지는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패트릭에게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악감정을 없애 버렸으며 나아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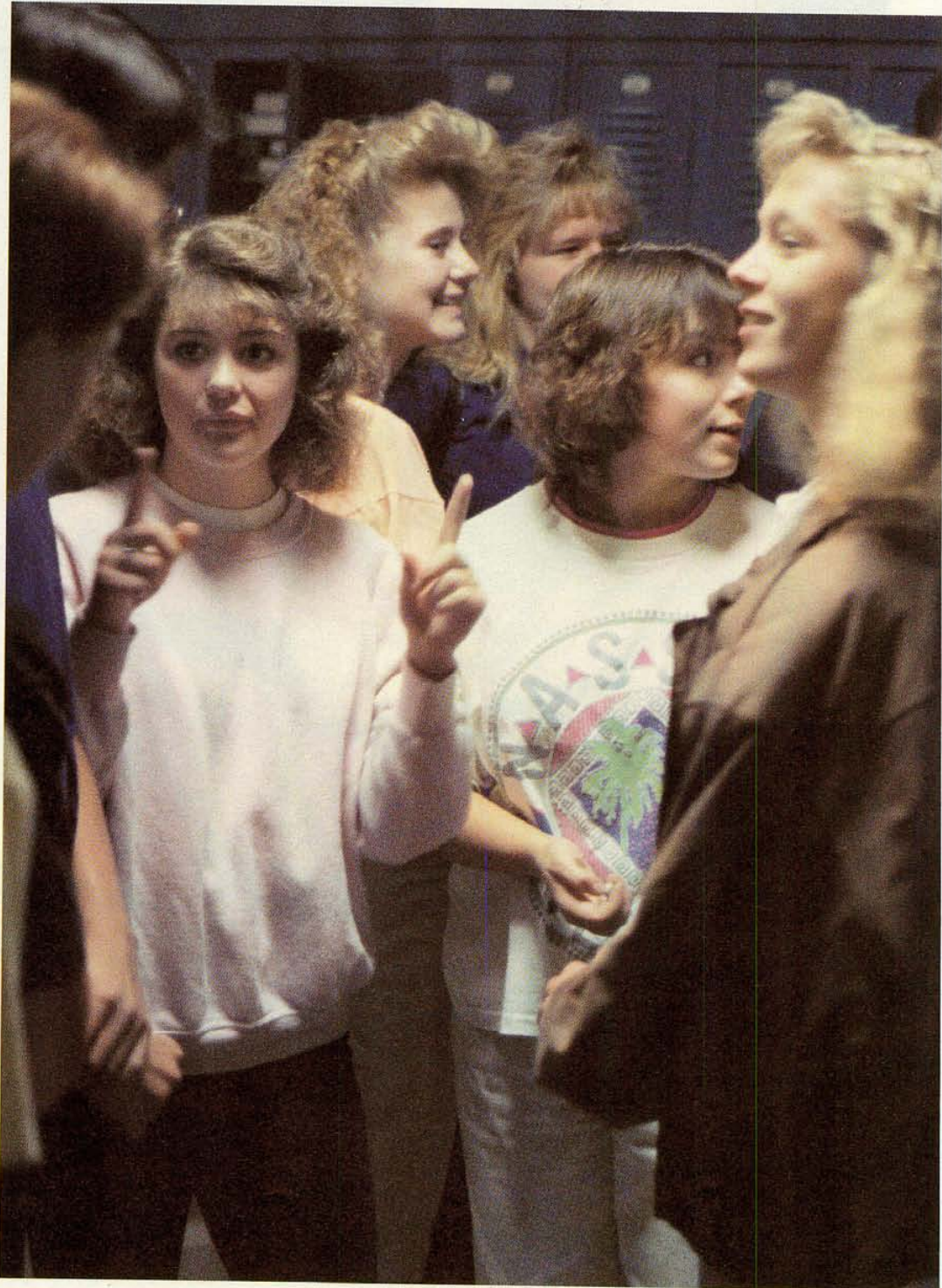
그날 우리 세미나리 반원들이 교환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돈으로 산 어떤 선물보다도 더욱 더 뜻이 깊었다. 많은 학생들이 영적으로 고양되었으며, 반원들이 나머지 한 해 동안 하나가 될 만큼 가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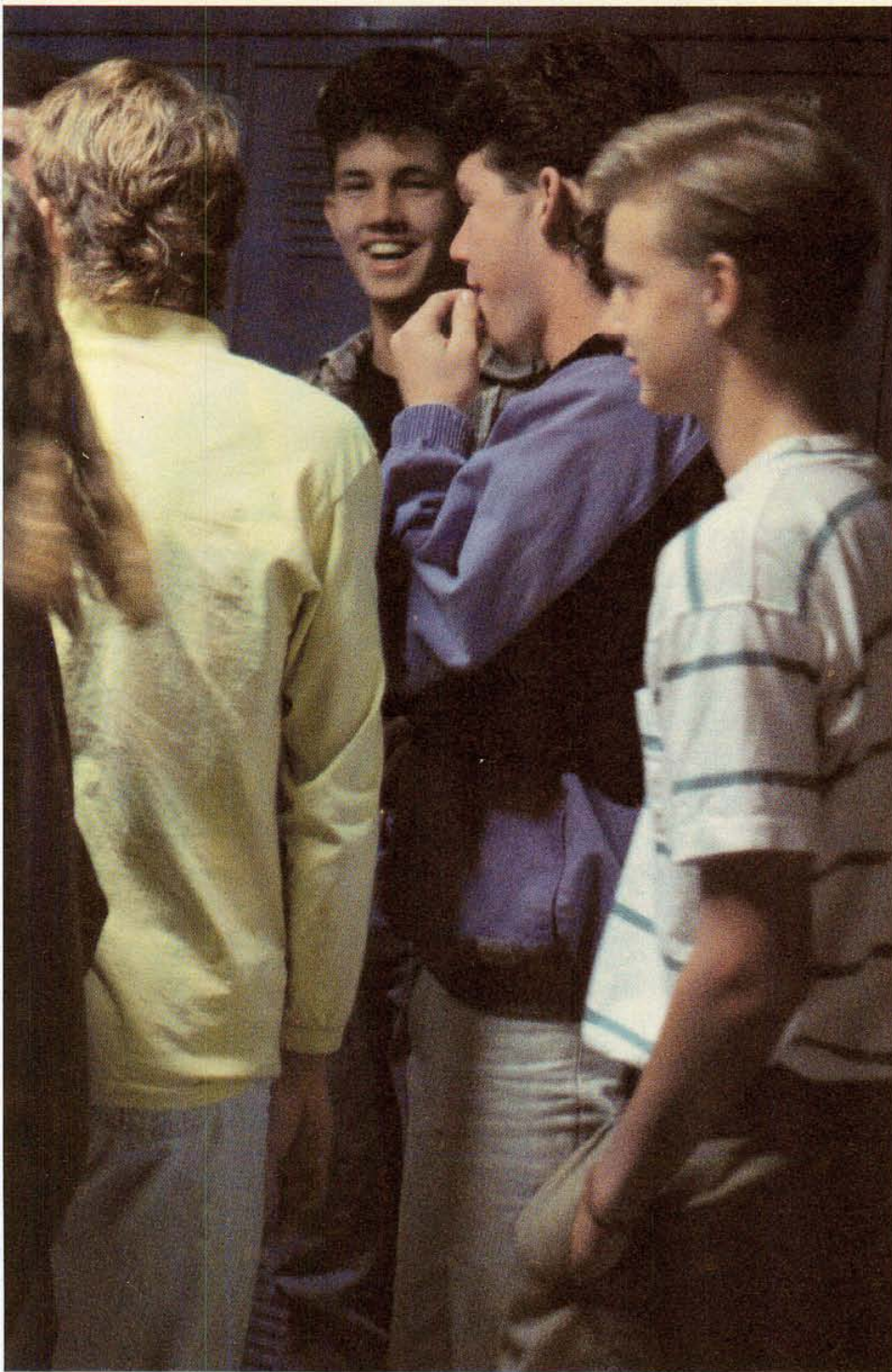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과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진정한 선물을 주게 됨을 배웠다. □





물론 휴게소





래리 에이 힐러

지도상에 나타나는
 소읍들에는 네거리 같은
 곳에 조그만 잡화점이
 하나나 또는 두 개쯤 표시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알래스카의 한
 고등학교에는 “몰몬 휴게소”라고
 불리우는 갱의실이 하나 있다.

이 휴게소와 작은 상점의 차이는
 만일 여러분이 큰 도시에 있는
 잡화점을 찾고 싶어한다면 그런
 조그만 잡화점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 줄 수 있지만 몰몬 휴게소는
 그곳을 찾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듯 해 보인다는 것이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에 있는
 래스롭 고등학교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매우 뛰어난 보인다.
 그들은 종종 미소와 상냥한 태도 및
 지도자적인 성품 때문에
 말일성도라는 것이 구별된다. 그리고
 그들은 수업 전후나 점심 시간, 또는
 필요한 경우에 모이는 장소인

말일성도 학생들은 알래스카 황야의
 한가운데에 세워진 도시에서 그들만의
 아늑하고 작은 휴게소를 세웠다.



거의 24시간 내내 햇살이 비치는 여름을 이용하여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에 사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지역 봉사 일원으로 도시의 한 기념탑을 뒹고 있다.

갱의실에 “몰몬 휴게소”라는 별명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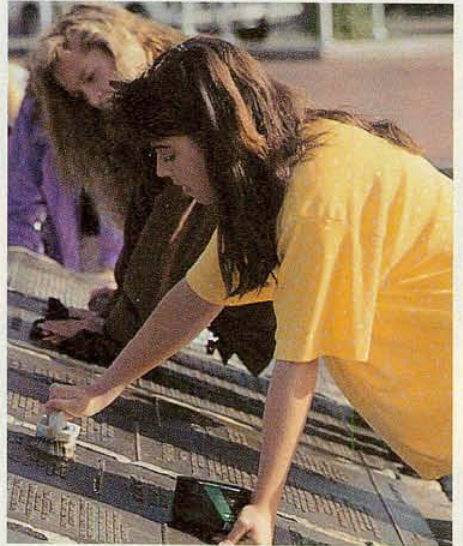
테드 폴슨 교장조차도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학교에 공헌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학생 자문단이나 학교 농구 팀에도 들어 있지요. 학교에서 그들은 지도자들이예요. 그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죠. 여러분은 몰몬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래스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폴슨 교장의 아들들도 말일성도 학생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의 아버지는 옷차림과 말씨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통해 말일성도인 학생들을 골라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몰몬 휴게소란 어떤 곳일까? 그곳은 한 명이나 그 이상의 말일성도 학생들이 편리한 갱의실을 지정하여 모이는 곳 어디나 해당된다. 그러므로 그 위치는 해마다 달라진다. 때로는 두 개의 몰몬 휴게소가 생기기도 한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흔히 들을 수 있는 농담을 주고 받고, 방과 후의 활동도 계획하며 친교를 유지하고 또 복음과 구도자 소개에 대한 얘기들도 적당하게 나눈다. 이에 대해 수잔 베네필드가 잘 얘기해 주고 있다.

수잔은 래스롭 고등학교의







페어뱅크스의 물론
청소년들은 열심히 복음대로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활동과 생활 양식을
즐기지만 한편으론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얼굴들 모두가
페어뱅크스의 청소년들은
아니다. 이 중에는
페어뱅크스의 풍부한 역사가
담긴 한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속 신앙과 상징물도 있다.
여러분은 양자를 잘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일성도
청소년의 얼굴에는 너무
같은 경직된 모습이 없다.



말일성도 청소년들을 주목하였으며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주목했던 한 가지 사실은 그들 모두가 미소를 띄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보였어요. 그들 대부분이 얼굴에 웃음을 띄고 복도를 지나다녔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들은 늘 그렇게 행복할까 하고 궁금하게 여기죠.”

수잔은 가장 친한 친구인 코트니 홀이 그녀를 새벽 세미나리에 초대해 주었을 때 그 답을 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게 좋아서 따라갔던 것 뿐이에요.”라고 수잔은 설명한다. “다음에는 청녀반에 나갔고 예배에 참석했으며 결국 모든 모임에 다 나갔죠.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친구 같았어요. 그러다가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마침내 이것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침례받았다.

“전 여전히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말일성도 청소년들과 있으면 동년배 그룹의 압력과 혐담이나 욕설도 없고, 또 술 마시는 일도 없다는 것을 알죠.”라고 수잔은 계속 말한다. 이제 수잔은 말일성도 학생들이 늘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이유를 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도 그와 똑같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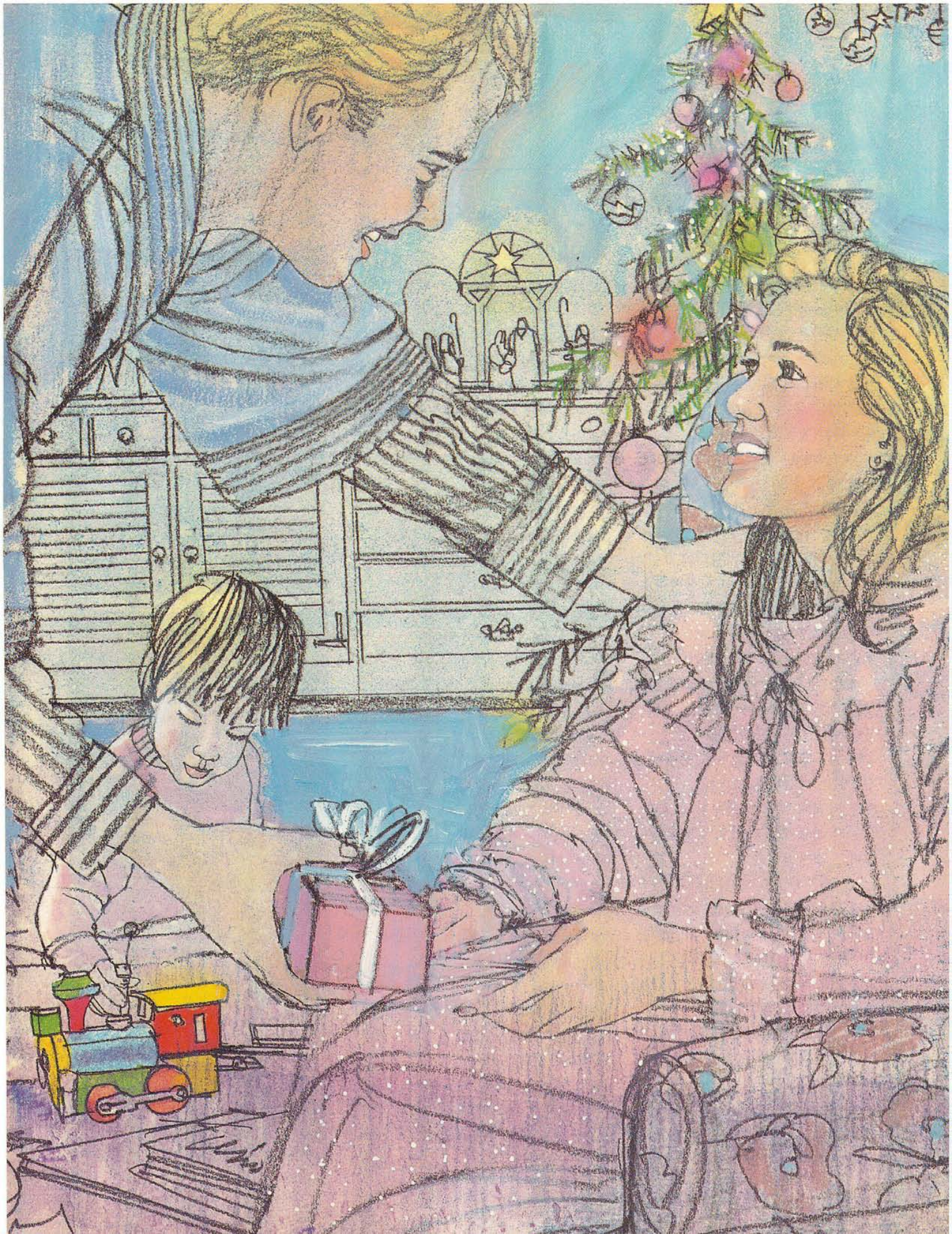
물론 페어뱅크스에 살면서 항상 웃고만 있다는 것이 썩 좋은 생각은 아니다. 특히 겨울에 치열 교정기를 끼고 밖에 나갈 경우 더욱 그렇다. 입술이 교정기에 얼어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겨울은 너무 추워서 샤워를 하고 머리가 축축한 상태로 밖에 나가면 문자 그대로 머리카락이 얼어서 부러질 정도이다.

반면에 여름에는 거의 24시간 내내 햇빛이 비쳐서 따뜻하다. 여름에 대해 물어보면 다시금 그 유명한 미소를 보게 된다. 그들은 “밤이 전혀 없어요.”라고 말한다. “부모님들이 ‘어둡기 전에 돌아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면 다음 날 아침에 돌아올 수도 있죠.” 수잔의 농담이다.

“이곳 사람들은 여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여름엔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하죠.” 누군가의 말이다.

페어뱅크스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생활에서 만큼이나 복음적인 면에서도 열심이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십대들은 사랑과 가족의 가치관과 영성 대신 술이나 마약, 성, 물질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가깝게 지낸다. 그들은 알래스카 황야의 한가운데에 세워진 도시에서 그들만의 아늑하고 작은 휴게소, 즉 물론 휴게소를 세웠다. □





또 다시 받은 선물

레베카 스트랜드 루슨

그 해 성탄절은 확실히 전에 없이 훌륭한 성탄절이 될 것 같았다. 남편 짐은 연초에 치과 대학을 졸업했다. 우리는 짐이 멀지 않아 치과 병원을 개업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므로 멋진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돈을 충분히 갖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새 옷, 새 성탄절 장식, 오븐에서 굽고 있는 과일 케익,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선물 등을 꿈꿨다.

그런데 웬걸, 우리의 생활은 몇 달 동안 말이 아니었다. 우리가 살던 아늑한 아파트와 좋은 친구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사하느라 얼마 남지 않은 은행 잔고가 바닥났으며, 새로운 청구서들이 쌓여갔다.

그때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기 때문에 행동에 대단한 제약을 받았다. 짐은 개업 준비를 하기 위하여 매일 밤 늦게까지 일했다. 정말이지 끝이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짐은 집에 있을 때면 내게 쾌활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지만, 나로서는 그렇게 외로워 본 적이 없었다.

11월에 드디어 병원이 문을 열었다. 개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청구서의 금액을 제 때에 지불할 수 없었다. 그 해 초에 우리는 이 때쯤이면 짐의 새 병원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식비도 거의 없었으며 그외의 다른 것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나는 더욱 더 풀이 죽었다. 우리는 예산을 쥐어짜서 18개월 된 아들 에릭을 위하여 동화책 몇 권과 장난감 한 개를 샀다. 나는 내 자신에게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을 선물이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성탄절의 정신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동화책과 장난감을 예쁘게 포장해서 낡은 인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았다. 우리는 판지로 그리스도 탄생 장면을 만들어 세웠으며 방 주위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을 조금 매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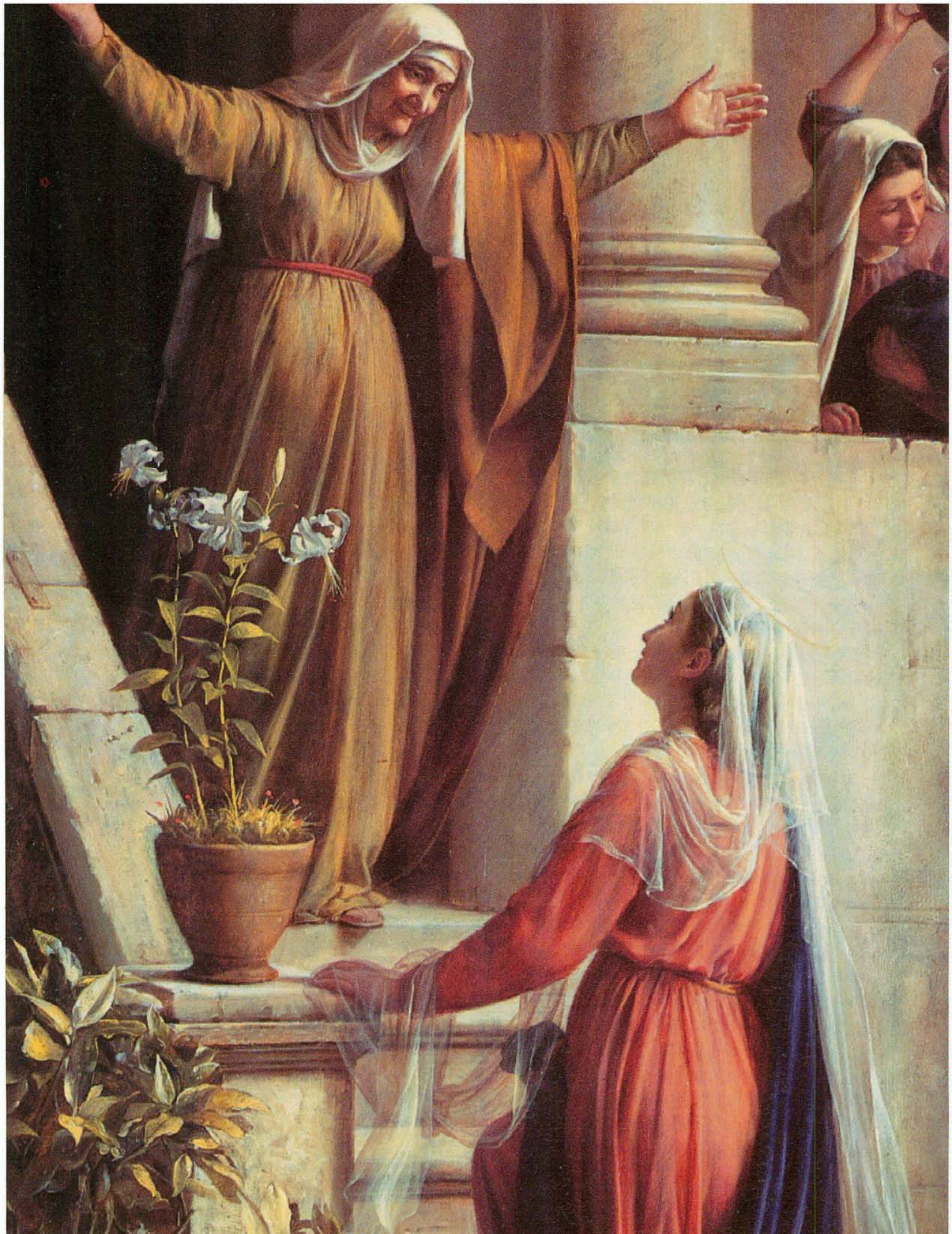
성탄절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에릭을 크리스마스 트리 앞으로 데리고 가서 선물을 열어보게 했다. 에릭이 선물을 열 때 나는 서글퍼서 목이 메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은 어디로 갔는가?

그때 짐이 내 어깨를 감싸면서 내 무릎에 조그만 꾸러미를 놓았다. 포장지를 찢어 벗기니 빨간 벨베트 상자가 보였다. 손가락이 떨려왔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상자에는 비싼 선물만이 들어있는데 짐이 어디에서 그런 돈이 났을까?

상자를 열었을 때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다. 상자 안에는 결혼하기 전에 짐이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던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사랑과 함께—또 다시, 짐”이라고 쓴 쪽지와 함께.

그 목걸이가 나에게 그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가슴 속에는 아픔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 왔다. 마침내 나는 성탄절의 정신을 느꼈다.

나는 자상한 남편에게서 그 성탄절 아침에 배운 사랑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는 교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열 두 증인들

조셉 필딩 맥콩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상의 성역에 대하여 말했다. (사도행전 26 : 26) 참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에 수도 많았다.

미대륙에서는 레이맨인 사무엘이 구세주의 강림에 대한 징조들을 예언했다. (힐라맨서 14 : 3~6 참조) 그리고 엘마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천사에 의해 “의롭고 거룩한”(엘마서 13 : 26) 이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나라에서는 그의 오심에 대한 간증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주님의 계명과 의식을 지키며 성신으로 가득찬 사람들 가운데에 선포되었다.

예를 들면, 복음서의 저자 마태와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열 두 증인에 대해 기록했다. 이 증인들 개개인의 간증도 저마다 주목할 만하지만, 이들의 간증을 합쳐 놓으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아주 강한 간증이 된다. 그들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모든 적절한 요소가 그 요소에 잘 어울리는 장소에서 나타난다.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한층 돋보인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서 그의 민족을 대신하여 바로 그 사건을 위하여 막 기도를 하고 있던 제사에게 한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아기 예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헤롯의 사악한 계획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늘이 제사장과 평신도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노인과 젊은이에게,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 중요한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다.

가브리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신약전서의 최초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가브리엘이었다. 적절하게도 이 사자는 성전에서 아론신권 반차의 충실한 제사인 사가라에게 처음 나타났는데, 사가라는 지성소 안에 있는 향단 위에서 분향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이 제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가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치된 신앙을 나타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손으로 그들을 모든 적으로부터 영원히 구해 줄 것을 비는 기도였다. 분향의 불꽃이 올라가는 것은 그 백성의 기도를 상달하는 것을 상징했다. 사가라가 기도하는 동안 성전 안에 있던 그의 동료 제사들과 모든 이들도 마음을 다같이 하여 사가라의



칼 하인리히 볼프호프

가브리엘



제임스 티티스

사가라



칼 하인리히 볼프호프

엘리사벳

간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의 사자”가 사가라 앞에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가브리엘이라고 밝혔다. (누가복음 1:11, 19)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가브리엘이 지상에서 노아로서 알려져 있고 가브리엘은 “신권에서 아담 다음의 권능에 있으며”(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7쪽), “만물의 회복”(교리와 성약 27:6~7)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브리엘은 자기가 지닌 열쇠들로 엘리야,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가브리엘이 지상의 엘리야,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침례 요한의 탄생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일이었다.

사가라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이 사가라는 누구였는가? 그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렇듯이 “의롭고 거룩한”(엘마서 13:26 참조)자였다. 사가라는 아비아의 자손이었으며 그 이름은 “여호와를 기억함”을 뜻했다. 사가라와 같이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자손이었으며(누가복음 1:5 참조) 그 이름은 “하나님에게 바침”이라는 뜻이다.

이 고결한 부부는 메시아에 앞서서 이 지상에 올 아기를

약속받았다. 사가라는 가브리엘의 예언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못하리라”(누가복음 1:20)는 징표를 받았다.

사가라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찰 때까지 병어리로 있었다. 엘리사벳이 해산한 뒤에 사가라의 입이 열리고 그는 자신의 아기가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간증하면서 그의 새로 탄생한 아기의 신성한 성역에 대하여 간증하였다. 이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한 소식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졌다. (누가복음 1:57, 64, 76, 65)

엘리사벳

우리는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누가복음 1:15)였다는 것을 읽었다. 참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누가복음 1:41)었다.

자신의 아들의 특성을 인식한 청결한 그릇으로서 엘리사벳은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 지닐 신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누가복음 1:42~43)

엘리사벳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침례 요한

침례 요한



마리아

마리아



요셉

이루리라”(누가복음 1:45)라고 예언함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끝맺었다. 신성한 탄생을 선포함에 있어서 엘리사벳은 먼저 온 자와 뒤에 오는 자에게 자신의 간증을 덧붙였다.

침례 요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국의 합당한 후계자로 탄생한 것과 같이 요한도 엘리야의 직분의 합당한 후계자로 태어났다. 그는 아직 어머니의 태안에 있는 동안 기쁨으로 뛰놀음으로써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의 성역을 적절하게 시작했다.(누가복음 1:76, 41; 15절 또한 참조)

기쁨으로 뛰노는 요한, 예언의 영으로 친척인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 그와 똑같은 영으로 응답하는 마리아,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또 다시 우리는 증거와 간증들이 불가사의하리만큼 얼마나 신기하게 잘 들어 맞는가에 주목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기적적인 상황 하에서 임신한 아기를 갖고 있는 연로한 엘리사벳과 젊은 마리아 두 여인의 간증이 너무나 훌륭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그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까지도 일어날 위대한 사건을 기뻐했다.

마리아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누가복음 1:32)을 수태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 놀라운 사건 후에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누가복음 1:49)라고 간증했다.

경전에서 니파이는 이 가장 신성한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 처녀가 영에 인도되어 감을 보았으니, 그 처녀가 영에 인도되어 가고 나서 잠시 후 천사가 내게 보라 하시기로,

“눈을 들어 그 처녀를 봄에 어린 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양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일서 11:19~21)라고 니파이는 기록했다.

참으로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한 대로 이러한 기적들을 증거하고 구세주를 낳은 “지극히 은혜받고” “여자 중에 복있는 자”(누가복음 1:28)였다.

요셉

요셉이 한 말이 경전상의 기록에는 없지만 그의 의로움과 마리아의 상태에 대한 그의 반응만으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음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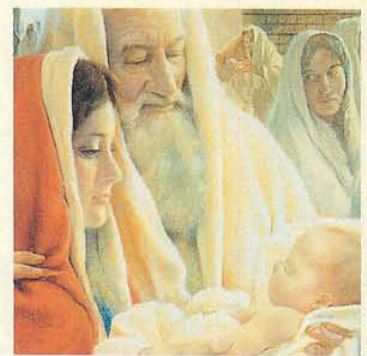
김 하인근(화) | 팔로초

목자들



김 하인근(화) | 팔로초

하늘의 합창대



김 하인근(화) | 팔로초

시므온

있다. 우리는 요셉이 꿈에서 천사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게다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충실했던 것같이 그가 받은 신성한 지시를 충실하게 지켰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태복음 1:20)라는 말을 들은 후 이미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에 있어서 의심치 않는 순종을 보였다. 그는 또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였고” 아들을 예수라 이름지었으며 밤에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 돌아왔다.(마태복음 1:25; 또한 19~21; 2:12~23 참조)

이러한 모든 행동을 통해 요셉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곧 이스라엘의 희망임을 확신했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다.

목자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날 밤, 목자들은 그리 멀지 않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의롭고 거룩한 이들”(엘마서 13:26)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리라는 것이 니파이인들 사이에 예언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들은

보통 목자들이 아니었다.

이 목자들은 그들이 특별히 목격한 것을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전했다.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성전 뜰에서 되풀이되었으며 그 이야기는 그곳으로부터 만방으로 퍼졌다. 누가는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본 후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누가복음 2:16~17)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한다고 그날 밤 목자들 앞에 서 있던 천사가 선포했다.(누가복음 2:10)

하늘의 합창대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발표한 후,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누가복음 2:13)고 있었다. 그때 하늘의 합창대가 유대의 겸손한 목자들에게 노래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4)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잔류민 사이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음악으로 알렸다.

시므온

이제 관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기로 하자.



제임스 티티소

안나



미너비 외커틀

동방 박사들



제임스 티티소

헤롯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의롭고 경건”(누가복음 2:25)하다고 묘사한 한 노인이 그가 구세주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기 예수를 안았다.

마리아는 씻음의 의식을 위하여, 그리고 요셉은 처음 태어난 남자 아기를 위한 속죄금을 내기 위하여 어린 예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말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누가복음 2:29~32)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성역이 범세계적으로 행해진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만백성을 대상으로 이 희망의 소식을 전파했다. 시므온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증거했다.

안나

이 놀라운 간증을 시므온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시므온의 특별한 간증에는 “충만한 은혜”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늙은 과부 안나도

함께 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충실하게 기다려 왔던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려 왔던 경건하고 덕이 높은 여인 안나를 잘 알고 있었다. 안나는 이 거룩한 가족에게 다가와서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누가복음 2:38)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동방 박사들

구세주의 탄생 직후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 대하여는 마태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마태복음 2:1) 이 박사들은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헤롯에게 그리스도의 거처를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복음 2:2) 헤롯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후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마태복음 2:12쪽 참조) 돌아갔던 것을 볼 때, 그들은 시현을 본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또한 요셉 스미스역 성경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였다.



목자들의 경배, 조조니 작; 국립 회랑, 워싱턴 디 시, 사무엘 에이지 크레스 수집품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상의 성역에 대하여 말했다. (사도행전 26:26) 참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증거한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에 속하며 그 수도 많았다.

헤롯

마지막 증인은 가장 그럴 것 같지 않고 꺼려지는 사람, 즉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다. 헤롯은 세상의 강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는 로마의 아구스도와 친구였고, 사리를 피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귀족을 학살했다. 그는 수 많은 산헤드린 회원을 살해했다. 그는 그의 처남인 대제사장을 그의 눈 앞에서 운동을 가장해서 물에 빠져 죽게 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았던 그의 아내 마리안느를 교살하라고 명령했다. 세 아들과 수많은 친척들을 포함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살해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세상의 사악함의 상징인 바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이자 통치자가 태어났다는 간증을 전했다. 헤롯은 시므온, 안나, 또는 소박한 목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으나 동방에서 온 손님들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들을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알고 그들의 간증을 믿었다.

사탄이 득세하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저항에 부딪치지 않게 되는 때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때 지옥이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하늘에서 전해 준 기쁜 소식이 어둠의 왕과 그의 종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였다. 사탄의 부하 헤롯은 박사들의 간증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다. 이리하여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마태복음 2:16)라는 칙령을 내렸다.

다른 증인들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에는 구세주 탄생을 증거하는 열 두 증인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지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전해지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그것은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특별한 증인들, 곧 하나님의 평의회에서 부름받고 예비된 증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증인이 될 것인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누가복음 1:6) 행하는 노인과 젊은이, 여자와 남자, 학자와 무식한 자와 꿈을 꾸고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찬 자 모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에 틀림없다. □

조셉 윌딩 맥콩키는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교육 교수이다.



베들레헴의 양떼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누가복음 2:8~9)



OYEUX NOËL GLEDELIG JUL
 HYVÄÄ JOULUA メリークリスマス
 VROLIJK KERSTFEEST GOD JUL
 GLÆDELIG JUL FELIZ NAVIDAD
 즐거운 성탄절 MERRY CHRISTMAS
 IA OAOA I TE NOELA MANUIA LE KERISIMASI
 BUON NATALE GLEÐILEG JÓL 聖誕快樂
 สุขสันต์วันคริสต์มาส FRÖHLICHE WEIHNACHTEN
 SELAMAT HARI NATAL KILISIMASI FIEFIA
 FELIZ NATAL!